

임실군, 고품질 국화 생산 만전

임실N치즈축제·옥정호 붕어섬 일원 전시... 심민 군수, 현장 점검·관계자 격려

임실군이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 전시할 국화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고품질 국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화분 국화와 현애 조형물 생산 현장을 점검한 심민 군수는 정마와 무더위 속에서 국화 생산 관리에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4일 화분 국화와 현애 조형물 생산 현장을 점검한 심민 군수는 정마와 무더위 속에서 국화 생산 관리에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임실군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10주년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국화를 생산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되는 화분 국화는 전년보다 5,800개가 늘어난 4만6,400개로 사각이 2만3,100개, 원형 2만3,300개다.

특히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은 혼합색 사각 화분의 비율을 23%까지 늘려 생산한다.

또한 현애 조형물은 중형으로 임실 고추와 한반도 지도를 추가해 기존의 쫄면, 신암, 치즈하트, 천사의 날개 등 총 6종 10개의 작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소재는 들방울, 느림포, 초생달, 하트, 클로버, 별, 잎발형 등 총 7종 390

개의 작품을 생산 전시하여 입체적인 경관을 조성한다.

더불어 7가지 색상의 포트국 2,300개를 생산하여 치즈캐슬 앞 꽃탑과 원형 조형물에 배치하여 불거리 충만한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해 기여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축제 시기가 전년보다 3일 정도 당겨져 시기에 맞춘 적기 개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밀한 수형관리와 비배관리로 축제 전시에 차

질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화 생산 전시가 큰 역할을 한 만큼 올해에도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현안업무 챙기기 '동분서주'

민선식 남원 부시장,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업무보고 받아

남원시 관계자는 민선식 남원 부시장(사진)이 신속한 현안 파악과 대응책 모색을 위해 밤낮 없이 주요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는 등 현안업무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3일 민 부시장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동시에 개최하는 남원시 대표 가을 축제인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과 제32회 흥부제 및 문화제 야행 등 3개 행사장 등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및 연계 동선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3일 저녁 늦은 밤 11시에는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4일과 5일에는 질병청, 식약

처, 전북특자도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 합동점검 회의를 통해 빠른 역학조사를 진행해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점검하고, 이어 부시장실에서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국 소관 등 12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도비 확보,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부서 간 협업 등 안정도 높은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민 부시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22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합파우 아트밸리,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지역활력타운, 승하원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을 빠르게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민 부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 공직자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정적인 재난관리를 인정받아 작년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재난 책임기관의 재난관리단계를(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안전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적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여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역량 배양 실적 △실제 재난사고 대응사례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기관 표창, 특별교부세,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백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임실군이 환경부가 실시한 2024년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환경부는 평가를 통해 지자체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대기·폐수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도 검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7건, 사용 중지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환경전문기술진단과 컨설팅 및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이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정 임실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법인, 경쟁력 부문 선정

남원시는 마을기업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번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경쟁력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황치마을영농조합은 천혜의 청정지역 지리산 뱀사골과 백무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은 생명이다"라는 철학으로 지리산 자락에서 주민들이 농사지은 쌀, 배추, 임산물을 활용하여 누룽지와 절임배추, 장아찌 등을 만드는 마을기업이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여 제조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채누룽지와 발아현미조청을 생산하는 등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인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은 매년 산내면 돌봄어르신과 반찬봉사모임에 누룽지를 기부하고, 산내초등학교 장 담그기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 설립 8년차를 맞은 기업은 이번 고도화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최신 식생활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기존보다 누룽지 중량을 낮춰 소포장으로 편리성을 확보하고, 오곡·오트밀 누룽지와 누룽지라떼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다이어트식과 건강한 디저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 입맛을 겨냥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마을기업 12개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 마을관광 및 체험, 전통주 양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일자리와 공동체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신청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읍면 방문과 영농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농작업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며, 그 결과, 467농가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벼 경작면적 m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1953년생)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맨발걷기국민운동남원지회 대한노인회남원지회 협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남원시지회(지회장 김영삼)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지회장 곡철근)는 지난 5일, '맨발걷기를 통한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치매 없는 나라 만들기 범국민운동' 추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맨발걷기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맨발걷기 건강 모임 가입 운동 전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맨발걷기 운동 확산, △맨발걷기 강좌 및 치유 사례 공유 및 전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영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남원시지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맨발 걷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체험 기회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착한가격업소 순창시랑 상품권 5% 추가 캐시백

순창군이 8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인 순창시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추가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순창시랑상품권 이용자들은 예산 소진 시까지 기존 상품권 선할인 10%에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순창시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은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 등록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순창읍에 9개소, 동계면 1개소, 북흥면 1개소 등 총 11곳이 운영 중이다. 해당업소는 공주식당, 텃밭, 행복식당, 해장명가, 우리동네순창점, 금호공업사, 린다미카롱, 분배감자탕, 장세프의 맛있는 한끼, 미연미용실, 북흥시골통닭 등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